



캐나다, 수확기 앞두고 작물 병해 확산 우려

(Canadian farmers fight heavy disease threat as harvest approaches)

캐나다의 듀럼밀, 보밀, 카놀라 및 두류 작물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병해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가의 방제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스캐처원주 남동부에서 듀럼밀, 밀, 렌틸콩, 아마, 보밀 등을 포함해 약 1만 9,000에이커를 경작하는 농업인 제이크 레기는 “올해는 모든 작물에 살균제를 살포했다”고 말했다.

인도, 8월 대두유 수입 사상 최대 전망...러·우 전쟁으로 해바라기유 공급 차질 영향

(EXCLUSIVE-India set for record soyoil imports as Russia-Ukraine war disrupts sunflower)

시장 관계자들은 가격 경쟁력과 축제 기간 수요에 대비한 정유업체들의 구매 확대에 힘입어 인도의 8월 대두유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바라기유 선적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부 수요가 대두유로 전환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거래에 직접 참여한 트레이더 4명에 따르면 8월 대두유 수입량은 6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작된 현재 판매연도의 월평균 수입량인 42만 4,549톤보다 약 46% 많은 수준이다.

러시아 밀 수출 가격, 터미널 가동 중단과 운임 상승으로 지난주 하락

(Russian wheat export prices down last week on terminal closures, rising freight rates)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주요 심해 곡물 터미널 운영 중단과 지속적인 해상운임 급등 속에서 지난주 러시아산 밀 수출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노보로시스크의 주요 심해 곡물 터미널인 NZT와 NKHP는 최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출처: Thomson Reuters